

## 형제회는 한가족

그리스도 신자가 되면 우리는 다른 신자들과 한 식구가 된다. 성서에서는 이를 한가족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후 부터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서로 형제자매라고 불렀다. 인정하기에 어려웠겠지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도 한 형제자매가 되었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여기에 두 갈래의 유혹이 있다. 형제자매라는 말을 별 의미 없이 쓰거나 한 가족이기를 포기하려는 유혹이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교회공동체가 형제자매라는 본 뜻을 외면하고 서로가 한식구임을 인정하지 않을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느님의 가족이 아니라 한 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Jamin Goggin and Kyle Strobel, *The Way of the Dragon or the Way of the Lamb*, p. 118 (2017) 신자들의 단체에도 모든 결점은 있지만, 여기서의 약하고 험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해한다. Finbarr Connolly, C.S.S.R. *God and Man in Modern Spirituality* p. 99 (1984)

“가족과 공동체는 사랑의 학교”라고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뭘 모를때 읽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아주 순진하게, 그리고 아주 잘못 이해하였다. 그 땐 그냥 “맞는 말이다!”하고 생각했었다. 한 집안에서나 공동체생활에서는 남의 잘못을 접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서로 참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할 때가 많다.

이 말은 우리가 남의 잘못을 인내함으로써 사랑과 성숙으로 성장할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성, 즉 가족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안에서는, 가식을 버리고 현실을 바로 봐야하며 그 안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반항하고, 거부하고 합리화하려해도 우리는 결국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다.

결혼, 가족, 신앙공동체, 참된 우정등 모든 공동체에서는 우리의 잘못과 좁은소견은 곧 들어나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 성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를 떠날 수 밖에 없으며 아쉽게도 그런 유혹을 받는 수가 많다. Ronald Rolheiser, *OMI in Our One Great Act of Fidelity*, pp.114-5 (2010)

### 묵상자료:

1. 위에서 읽은 내용을 당신의 형제회 상황에 대입해 보자.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형제회생활이 우리가 “가식을 버리고 현실을 바로 볼수 있게” 하는지? 또는 우리가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지 못하고 자기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도 “모든 잘못을 뿌리 뽑으려” 하지 않는지? 또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때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모른체 하지는 않는지?

2. 형제회의 다른의견을 어떻게 사랑으로 극복하는가? 각자의 경험을 나누어 보자.

3.서약반 양성에 있는 사람이 형제회에 크게 실망하여 양성을 그만두려 한다고 가정하자. “이 형제회 사람들은 모두 위선주의자예요. 입으로는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깐요.”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 줄수 있는가?

4. 형제회 생활에 투신(commitment)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투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것인가?

5.형제회생활과 가족관계등 다른 인간관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것인가? 이에 대해 서약후보자에게 해 줄수 있는 조언은?